

일본 클라인가르텐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가족농원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정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Kleingarten Model in Terms of Japanese Kleingarten

Choi, Jung Min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kuk Univ.

ABSTRACT : This paper performed a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 called a Korean style community garden, a Kleingarten in Japan,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emand for green tourism. For this, theoretical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site surveys for Kleingarten in Japan were carried out and some strategic conclusions were drawn. The results show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hardware, facilities and size should be setup according to the condition in Korea and long-term demands for green tourism. Adequate size of lodging facility, a cottage, should accompany the garden.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for the management of Kleingarten.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ftware, Administration should make an effort to obtain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rom the local residents. It turns out that a Kleingarten takes an important role when urban residents move into rural areas or carry out a multi-habitation. Barrier-free design for cottages is also needed.

Key words : Allotment Garden, Kleingarten, Multi-habitation, Rural Experience Tourism, Weekend Farm.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과 맞물려 근래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다지역거주(멀티해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5일제 근무의 정착, 여유로운 삶과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도농교류에 의한 상생전략 등이 이러한 흐름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존의 가족별장, 주말주택, 펜션 등 소위 세컨드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으로, 전원 체험형 관광 수요의 증가에 따라 외국과 같은 체재형 가족농원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박선희, 2010).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체재형 가족농원이 주목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

한 형태의 시설이 존재하여 왔다. 이를테면,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일본의 시민농원(市民農園), 러시아의 다차(Dacha)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독일어로 ‘작은 정원’을 뜻하는 클라인가르텐은 19세기 후반부터 대도시 인근에 소형 주말농장의 형태로 보급되어 도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한 대표적 공간으로 정착되어 왔다. 이웃 일본의 시민농원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등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이후, 독자적 모델로 발전,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시민농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농촌복합생활공간 구성에 중요한 참고모델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가족농원 구성에 있어 적합한 모형이다(박덕병, 2006). 그 이유로, 시민농원이 도시민들이나 농촌주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 시민농원을 정착 및 촉진시킬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다. 나아가, 향후 체재형 가족농원에 대한 확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의 개발을 위해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

Corresponding author: Choi, Jung Min

Tel : 02-2049-6075

E-mail : jmchoi@konkuk.ac.kr

서 일본의 사례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박선희, 2010). 구체적으로, ‘일본 체재형 시민농원’(일본에서는 ‘클라인가르텐’이라고 칭함, 이하 혼용해서 사용)에서는 공동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고 있다는 점, 평야지역 이외에 준산간 및 산간지역에도 시민농원이 위치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상기 선행연구나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이웃 일본의 분석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 외형적 시설 특성이나 제도 운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듯하다. 이와는 달리, 1)일본에서 시민농원과 관련하여 어떤 학술적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2)일본 ‘시민농원’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역할, 3) 시민농원의 분류방식에 따른 종류, 4)시민농원의 발전과정 등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기 힘들다. 게다가, 5)실제 체재형 시민농원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운영방법, 6)이용객의 시설 이용상황, 나아가 7)클라인가르텐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 등 표면에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층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상기 1)-4)는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연구이며, 5)-6)은 공무원 면담 및 현지조사에 의한 현황조사이며, 7)은 ‘일본클라인가르텐연구회’ 담당자와의 인터뷰조사에 의한 보완적 연구이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이미 국내 기존연구에서 널리 소개된 내용은 가능한 배제시키고,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소위 ‘한국형 체재형 가족농원’의 모형 개발 및 정착,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현지조사 및 인터뷰조사로 실시되었는데, 먼저 문헌조사에서는 일본 시민농원에 대해 한일 학술문헌을 폭넓게 입수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현황조사에서는 일본 수도권 및 근기권으로 지역을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하였는데, 1차로 진행된 일본 수도권에서는 이바라기현(茨城県) 소재의 클라인가르텐 두 곳을(2009년 2월), 2차로 진행된 근기권에서는 효고현(兵庫県) 소재 네 곳을(2009년 6월) 조사하였다. 이때 관찰 클라인가르텐 지자체 공무원과 모두 면담하였고, 클라인가르텐 운영 담당자와 면담하였으며(3곳), 농원에서 생활하는 시설이용자와 면담(2곳)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2009년 1월에는 도쿄에서 ‘일본클라인가르텐연구회’(별명 ‘일본시민농원연합’) 핵심 담당자와 심

층면담을 통해 일본 클라인가르텐이 안고 있는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II. 시민농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기존연구 및 동향

가. 국내

가족농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은 편인데, 특히 일본의 클라인가르텐에 해당하는 체재형 가족농원에 대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도입되는 단계라서 그런지 학술연구가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런 와중에 국내 체재형 가족농원에 대한 많은 연구는 농촌진흥청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예컨대, 일본·독일·러시아의 가족농원에 대한 소개(농촌진흥청, 2005)를 시발로 하여, 이들 외국 가족농원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 연구(박덕병 등, 2006), 체재형 가족농원 이용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 연구(박덕병 등a, 2009)가 그것이다. 아울러 실제 이들 시설의 도입에 있어서 사업성 확보 및 마케팅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석도 동시에 진행된 듯한데, 예컨대 마케팅분석에서 많이 이용하는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체재형 가족농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박덕병 등b, 2009), 시범사업 지구인 전북 순창군에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연구(이민수 등a, 2007), 게다가 소비자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 전략에 기초하여 클라인가르텐의 육성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민수 등b, 2007)등이 그것들이다.

한편 공간계획적 관점에서 일본 체재형 시민농원의 공동시설과 숙박시설인 라우베의 공간구성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박선희, 2010)가 있고, 이에 앞서 도시민의 다지역거주(멀티해비)의 관점에서 한일 클라인가르텐의 현황실태를 분석한 연구(손혜미 등, 2009)도 있다.

이와 같이 체재형 가족농원과 관련해 국내에 소개되고 연구되는 자료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적으로 소수인데다가 또한 질적으로도 대부분 현실적 시설 및 제도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술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고찰이 미흡하다.

나. 일본

일본에서 시민농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와 학술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당시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제도를 소개하거나 일본으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祖田(1981)는 일본 도시계획이 오로지 경제적 합리성만 추구하여 생활환경으로서의 측면을 경시해 온 것을 비판하고, 도시주민을 ‘자연’이나 ‘농(農)’과 결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시민농원이 이러한 방향과 역할에서 하나의 중요 계획요건으로 부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당시 농지에 휴게시설이나 주차장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법적인 제약이나,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 주는 것에 대해 느끼는 토지소유자의 강한 저항 의식(東, 1985) 등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일본 지방도시에서는 좀처럼 시민농원 수요에 부응하는 대농원이 출현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특정농지대출법(1989년)과 시민농원정비촉진법(1990년)이 제정됨에 따라 비로소 휴게시설 등 체계적 시설을 갖춘 클라인가르텐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4년 숙박시설 라우베를 갖춘 나가노현 소재의 보쥬야마(坊主山) 시민농원(長野県四賀村)이다. 이곳 시가무라(四賀村) 지역은 당시 GDP가 높아 생활 대국이 된 일본 도시민이 향후 주말을 체재형 시민농원에서 보낼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 사업을 지역재생 및 지역만들기와 연계하였는데,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시설 설치를 진두지휘하여 결실을 맺은 사례이다(長谷川, 1996).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최적화수법(鄭, 1995), 공공서비스(山崎, 2000), 저출산고령화(菊池, 2001), 도농교류(宮下, 2006), 역사(穂鷹, 2002), 주거환경(三島, 2003), 지역활성화(山崎, 2004), 환경정책(河内, 2006), 환경교육(高雄, 2006) 등이 관련 주요 연구 키워드이다. 한편 古屋등(2004)은 당일치기 중심의 일상형 시민농원에 비해 체재형 시민농원인 클라인가르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에 관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山口(2009)는 지방도시 야마가타시(山形市)에 있어서 아파트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클라인가르텐에 대한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수요를 조사해 지역적 사업전개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려 하였다.

2. 일본 시민농원의 이해

가. 시민농원의 정의

일본에서 ‘시민농원(市民農園)’이라는 용어가 통용되

기까지는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다. 시민농원이 법제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 말의 논의를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시민농원의 모태가 된 독일 클라인가르텐에 대한 일본어 용어는 다양하여 접근방식에 따라 달리 불렸다. 초기엔 당시 도시계획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던 ‘분구원(分区園)’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는 영국의 얼라트먼트(Allotment)를 그대로 번역한 형태였으나 당시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었다. 대신 ‘시민농원’은 일반 도시민과 농정 측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었던 터였으며, 일부 도시계획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등 이미 널리 사용되어 왔기에(橫山 1989) 이후 자연스럽게 통용된 것 같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시민농원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탄생하여 독일에서 형태와 개념을 갖추고, 프랑스에 의해 국제조직화가 추진되었다고 일컬어진다(千葉県市民農園協會, 2004). 어느 나라든 출발 당시에는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된 자급 채원 또는 자급 농원으로서, 정원은 협소한 경지를 가리켰다(佐古井, 2008). 이렇듯 일본에서 부르는 시민농원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등을 참고하여 ‘도시녹지(시설)’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법령인 시민농원촉진법에서 농원 이용자는 ‘주로 도시의 주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 ‘도시’라는 게 그 당시 어느 정도 규모의 것을 일컫는 지 불명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농원이란 대도시(또는 지방의 중핵도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묵시적 전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柴田, 1994). 이는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시민농원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는데, “체재(숙박)형, 리조트형, 도시농촌교류형”의 슬로건에서 보듯 용어의 접근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용어의 정의를 둘러싸고 관계부처의 입장과 힘겨루기에 따라 미묘한 것이 감지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일본 시민농원의 궁극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다(加藤, 2007). 즉 도시 측(국토교통성)과 농촌 측(농림수산성)의 힘겨루기가 바로 그것인데, 농촌 측에서는 시민농원이라는 일본어에 ‘農’이 들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 상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도시 측에서는 영어의 ‘Garden’을 직역하면 ‘정원’이 되기에 도시 ‘공원’의 연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도시행정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공원의 개념으로 이를 본다면 ‘도시공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면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보면 농업적인 개념으로 ‘시민농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도시공원과 시민농원의 지역적 경계가 어디

에 있는지 애매하지만, 문제는 이 공원 또는 농원에서 먹을 것을 만드는 순간에는 ‘농지’가 된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혹은 현재의 이러한 이원법적 제도 및 관계부처의 입장과 힘겨루기를 떠나, 그 중간 영역의 것이 정책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떠나, 현재 일본의 시민농원정비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시민농원은 다음과 같다. “주로 도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농지에서 다음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것과 시민농원시설로서, ①특정농지대부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제공되는 농지(특정농지대부방식), ②상당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형적인 조건에서 레크리에이션, 기타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는 농작업 용도로 제공되는 농지(농원이용방식)”. 그리고 시민농원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농기구수납시설, 휴게시설, 기타 당해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라 기술하였다.

이외에도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東(1991)는 시민농원을 “임대차에 의한 도시민의 취미 농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고, 柴田(1994)는 “농업인 이외의 사람들이 영리 외의 목적인 취미 등으로 농작업을 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농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나. 시민농원의 기능과 역할

시민농원이 가지는 순기능에 대해서 일찌기 치바현시민농원연구회에서는 다음 7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①녹지환경을 확보하는 환경보전 기능, ②다수의 이용자 교류로부터 생기는 커뮤니티 기능, ③농원 주변 거주자와의 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 기능, ④휴과의 접촉이나 자연적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 ⑤이용자거리 연중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여가활동 기능, ⑥경작의 땀 흘림에서 오는 건강증진 기능, ⑦고령자의 삶의 보람 활동 장소로서의 사회복지 기능(千葉県市民農園協會, 2004; 김재원, 2007).

이외에도 작금의 농작 포기나 경지 유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농원은 도시지역에서의 농업이라는 측면에서 택지화 농지의 유효활용이란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게다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 경관 및 환경보전 기능의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松宮, 2006). 비슷한 맥락에서, 이러한 시가지내의 농업이나 농지에 기대하는 기능은 시가화가 완성되기까지의 ‘경과적(디딤돌)’ 기능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높아지는 도시와 농촌의 ‘공존적(상생)’ 기능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들 기능에 추가하여 사회복지, 생산농지 확보, 경영의 다각화, 자원·자산의 보전, 투자형성의 기능

으로 확장해서 그 의의를 찾기도 하였다. 加藤(2007)는 도시농업의 안정과 도시와 농촌의 상호 이해를 위해 도시공간에 농지(경작 공간)를 남길 것을 강조하며, 특히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 기능에 주목하였다. 그는 시민농원이 장애인이나 다양한 연령층을 개호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지역 커뮤니티에 있어 개호시스템을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구성해 감에 있어 그 효용을 생각할 때 시민농원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커뮤니티 기능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농원에 잠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 기능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大江(2009)는 체험형 시민농원의 역할을 이용자 측면의 수요 요인과, 생산자 측면의 공급 요인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도시민의 레크리에이션 욕구의 증가에 따라 농업이 가진 다면적 기능(多面的機能) 중에 보건·휴양 기능에 주목하였고, 공급 측면에서는 농업인이 고령화할 경우에 있어 하나의 선택적 메뉴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새로운 도시농지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사업 기회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도시농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에 대해 유예조치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독일 클라인가르텐 그 자체에서 의의를 찾자는 주장도 있는데(高雄, 2007), 독일 클라인가르텐 제도에서 기술하고 있는 “도시계획적, 환경적, 사회적” 등 다면적 요소를 동시에 갖는 하나의 시설로서 시민농원의 기능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사유화된 주택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개방적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분단에 대한 연결 회복의 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을 망라한 ‘시민활동’이 전개되는 지역, 즉 시민사회를 형성해 가는 하나의 자원으로서 시민농원의 기능과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시민농원의 종류

1) 입지(위치)에 따른 분류

이용자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시민농원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가름의 척도가 된다(Figure 1). 이에 따라 도시형, 도시근교형, 농촌지역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이용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분류는 원래 일본 농촌계획학회의 ‘지역자원 정비활용 농업구조개선사업 : 고향 체험농원형’(농림어업체협회, 1992년 3월)이라는 컨설팅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하였다(柴田, 1994). 도시형의 경우는 이용자의 거주지 도시지역 내 또는 그 인접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자동차로

10분~20분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도시근교형은 자동차로 30분~1시간정도 거리이며, 농촌지역형은 더 멀리 1시간~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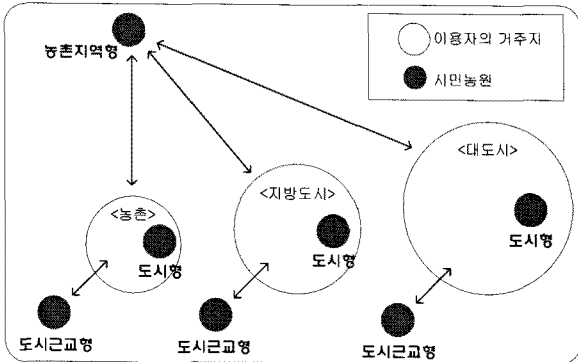


Figure 1 입지에 따른 시민농원의 분류.
(자료: 농촌진흥청, 2005)

Table 1 시민농원의 위치 및 유형별 입지 관계.

	A.일상형	B.주말형	C.체재형
대 도시	○ 농업인/지자체/농협	△ 지자체/농협/농업인	× (고지가로 곤란)
지방 도시	△ 지자체/농협/농업인	○	○ 지자체/농협 (보조사업)
농촌 지역	× (당일치기 곤란)	△ 지자체/농협	○ 지자체/농협 (보조사업)

※○: 주로 입지, △: 입지 가능, ×: 입지 곤란
(자료: 青木(2004)를 참조하여 편집)

2) 이용형태에 따른 분류

시민농원의 이용 및 활동형태에 따라 크게 일상형과 체재형으로 나뉘는데, 일상형은 이용자의 거주지와 가깝고 구획면적이 작아서 라우베가 없는 유형으로, 법률이 정비되기 이전인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주로 개인 농가가 개설한 유형이다. 주말형은 거주지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당일치기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숙박할 수 있는 라우베를 가지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중소규모 농원이다. 일본 수도권 소재 시민농원을 사례로 한 永井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일상형과 주말형 시민농원의 분포는 도심에서 10~15km권에 가장 고밀도로 분포하고, 특히 수도권 서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은 주택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과 일치하는 곳으로, 다시 말해 거주지 인접 농지가 시민농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재형은 체재할 수 있는 라우베를 가진 형태로 구획면적이 큰 유형인데, 통상 '일본형 클라인가르텐'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도쿄 도심에서 50~175km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일상형에 비해 그 수는 적은 편이며 주로 중산간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들 체재형은 당일치기가 곤란한 원격지 형태로, 이용자는 통상 비일상적 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는데, 주말방문 등 2지역거주자를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걸맞은 형태라 할 수 있다. 농원 개설자는 농원부수시설인 라우베를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다(大江, 2009). 이들 체재형 시민농원인 일본의 클라인가르텐은 1990년 이후 지역활성화나 유희지 활용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집중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체재형이 19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민농원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와 관련 있다. 통상 일본에서 '시민농원2법(市民農園2法)'이라고 불리는 특정농지대부법과 시민농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인 이외의 사람들도 농지 임대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시가지조정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지에 휴게시설이나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3)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계약조건의 형태에서는 더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서 재배작물을 한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것과, 특정 재배작물로 제한하는 특정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에 따라서 이용자를 제한하지 않는 일반적인 것과, 고령자, 장애인, 저학년 학생 등과 같이 특수한 자로 제한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東, 1991). 먼저, 임대차 계약의 통제방식에 따라 '자유계약형'과 '통제계약형'으로 구분된다. 자유계약형이란 임대차 요금이나 기간 등 계약내용이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것이고, 통제계약형이란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것들이 통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단체의 개입 여부에 따라 '직접계약형'과 '간접계약형'으로 구분된다. 토지소유자와 개별 구획이용자와의 사이에 어떤 형태의 단체(지자체, 농협, 이용자 단체)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간접계약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직접계약형이다.

한편 농원 개설자의 입장에서 농원을 임대해 주는 임대형과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체험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분류는 상속세나 증여세 유예조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大江, 2009). 즉 임대형 농

원에서는 농업인이 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활동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또한 소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하여 체험형에서는 농업인은 어디까지나 이용자에게 농작물을 재배 지도한다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여겨지므로 유예조치의 적용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4) 기타 분류

공간적 형태와 정비 상황에 따라 ‘단지형’과 ‘비단지형’으로 구분하는데, 단지형이란 일체적으로 일정 획지가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도로, 광장, 관리동(클럽하우스) 등 공동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비단지형이란 획지가 공간적으로 개별 분포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의 획지가 있더라도 시설정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東, 1991). 또한 농원의 경영방식에 따라서는 다음 네 가지의 분류가 가능한데(都市農山漁村交流活性化機構, 2006), ①농원 및 간이숙박시설 일체형, ②농원만을 이용자에게 대출하고 부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형, ③민박경영자가 소유 농원을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형, ④기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鄭(1995)은 시민농원 계획안 최적화 수법을 연구하기 위해, 생활권형 시민농원, 체험교류형 시민농원, 도시유형 클라인가르텐(주말세컨드 라이프형 / 리플레쉬 체재형), 농업공원형 클라인가르텐(농업진흥형농업공원 / 관광리조트형 농업공원)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라. 시민농원의 역사

일본 시민농원의 발전과정에 대해 지금껏 통일된 체계나 시기 구분에 대한 언급은 국내의 문헌에서 찾기 힘들다. 이에 필자는 문헌고찰 과정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도입 및 공백기(1924년~1945년)

1924년 10월 교토에 있는 원예 애호가 민간단체인 ‘교토원예클럽(京都園芸俱樂部)’이 분구농원을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일본 최초의 시민농원이라 알려져 있다(江川, 2006). 이것은 당시 영국의 얼라트먼트(allotment)를 벤치마킹하여 교토시내에 전파한 것이다. 1926년 오오사카시와 오오사카시농회(大阪市農會)는 협동하여 공공단체가 기획·운영하는 형태로 시민농원³⁾을 개설하였고, 1933년에는 수도권의 도쿄시농회가 오오이즈미(大泉)라는 시민농원을 개설하였다. 오오사카와 도쿄의 시민농원은 영국을 벤치마킹한 교토와 달리,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모델로 하였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시라는 특수상황에 따라 공지를 일반에게 개방한 시기로,

시민의 식량 자급을 위해 하천부지에서부터 운동장의 잔디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감자밭을 일군 시기여서 클라인가르텐 발전과정에 있어서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橫山, 1989).

2) 불법적 부분 확산기(1946년~1975년)

전후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공지를 이용한 채원이 확산되었지만 이후 농지법 제정과 경제부흥에 따라 시민농원은 점차 자취를 감췄다(東, 1991). 즉 1952년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민농원은 제도적으로 설립될 수 없었기 때문에 1960년 중반까지는 농원 개설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그에 따른 도시근교의 유희농지 대책과, 1968년 ‘신도시계획법’에 의해 마련된 ‘지역지구제(선긋기,線引촌⁴⁾)’에 의해 시가화구역 내 농지 이용대책의 하나로 시민농원이 대안으로 주목 받으면서 증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시민농원이 여전히 농지법상 불법이었기 때문에 당시 행정기관이나 농협과 같은 공공단체는 참여할 수 없었다(松宮, 2006).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소위 일본의 경제가 고도성장함에 따라 도시의 스포를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이 시행되었다(1968년). 그 결과 많은 농지가 시가화구역으로 편입되었고, 도시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공단(公團)(현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등으로 유입해 오는 많은 거주민의 녹지 수요에 편성하여 ‘임대농원(貸し農園)’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농지를 보전해갔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에서의 녹지 확보와 지역 농업의 진흥이라는 견지에서 당시 농지법에 저촉되던 ‘임대농원’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농원출입 이용방식(入園利用方式)’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민농원이 확산된 또 다른 이유는, 무논전작제도(水田伝作制度)와 밀접하다(東, 1991). 즉 당시 이미 농지가 남아돌아 시민농원이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채택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농지법에 의해 비농업인에게는 농지 대차를 금지하고 있었다.

3) 편법적 확산기(1976년~1989년)

각지에서 시민농원이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975년 당시 농림성은 소위 ‘레크리에이션 농업에 대하여’(構造改善局通達)라는 지침을 도도부현 지사에 내려 시민농원을 공인하였다. 이는, 말하자면 더 이상의 불법적 시민농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일종의 궁여지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松宮(2006)는 이를 일본 시민

농원의 발전에 있어서 정책적 추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1975년의 이 지침(通達)에서는 시민농원을, ①대차가 아닌 농작업의 일부를 돕는 ‘농원출입 계약방식(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인정하였고, ②개설 축진은 시가화구역 이내로 하였다. 전자는 시민농원을 단순히 채마밭(圃場)을 구획하여 임대하는 정비수준이 낮은 것에 머물게 하여 이용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후자는 토지의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다(東, 1991). 아무튼 임시방편적이긴 하나 이 지침은 농지법과의 정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화구역 내의 농지로 한정하면서 시민농원 이용을 농지의 대차권 등 권리 설정을 동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도하여 숨통을 열어준 셈이었다. 1978년에는 같은 형식의 국장 지침(局長通達)에서 시민농원을 일종의 전차 형태로 간주하여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하였다.

4) 법적 확산기(1990년~2002년)

1980년대 중반까지 시민농원수의 증가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도적(법적) 정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특정농지대부법(‘특정농지의 대부에 관한 농지법의 특례법’, 1989년)과 시민농원정비촉진법(1990년)이 연이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1999년에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년)이 마련되어 시민농원 추진의 위상이 높아진데다가, 각 지자체가 시정촌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해 시민농원은 시정촌 내지 농협이 중간에 개입하는 ‘간접계약’ 형태를 조건으로 하여 농지에 대해 임대차가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농지법에서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묶여 있던 여러 제한 조치에서 벗어나게 되어, 비로소 시민농원은 농지소유자가 안심하고 임대할 수 있는 ‘자유계약형’ 형태의 민법상의 임대차 형식의 시설이 되었다. 이는 “장기간 개설 → 정비 수준 향상 → 수요 증가”를 전망한 제도 조치이기도 하다(東, 1991). 이어 시민농원정비촉진법에 의해 드디어 시민농원은 정식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클럽하우스(관리동),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해 체재형 시민농원으로서의 일체적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른바 체재형 가족농원인 일본형 클라인가르텐이 제도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도시민의 농지이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大江(2009)는 이를 1989년의 특례법에서 진일보한 법적 조처라 평가하였다.

5) 연계 발전기(2003년~현재)

농림수산성은 2002년 ‘식과 농의 재생플랜’에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라는 점에 착안해서 시민농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4월에는 ‘구조개혁특별구역법’ 가운데서도 농지의 유희화가 심각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시민농원 개설을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민농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특정농지대부법이 개정돼 지자체와 농협 이외에도 협정을 체결하면 시민농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는데, 농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 NPO 등 비영리단체도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서 2006년에는 ‘시민농원의 정비 추진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라는 지침이 내려져, 시민농원에서 여가 생활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라도 재배된 농작물 중 자가소비량(自家消費量)을 초과하는 것은 판매소 등에서 판매가 허용됐다(오마이뉴스, 2008년 12월 15일).

III. 일본 클라인가르텐 현황조사

1. 일본 도쿄 수도권

가. 클라인가르텐 야치요(クラインガルテン八千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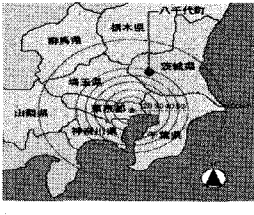



1) 위치

이바라기현(茨城県)에 위치한 야치요초(八千代町)는 관동평야의 거의 중심에 위치하며 수도권에서의 중요 식료공급 기지 중의 하나이다. 농업이 기간산업이며 도쿄 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는 조반(常磐) 고속도로와 국도를 경유하면 약 2시간에 도착한다. 체재형 시민농원 앞에는 ‘야치요 그린 빌리지’라는 농촌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캠프장, 바베큐장, 농산물 가공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지척의 거리에 ‘야치요노유(やちよ乃湯)’라는 지역 주민이 애용하는 천연온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곳 시설의 특징이라고 하면, 체재형 시민농원이 농촌공원과 연계되어 마치 ‘종합공원’과 같이 일체적으로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2) 시설

클라인가르텐 전체 면적은 9,274㎡로 20구획을 갖추고 있으며, 1구획의 크기는 270㎡, 2층 건물인 라우베는 약 29㎡이다. 라우베 내에는 침실, 부엌, 욕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클라인가르텐이 그러하듯 연간 이용료는 40만엔, 관리비는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고, 1년

Table 2 일본 수도권 현장조사 사례지역 비교

구분	클라인가르텐 야치요	클라인가르텐 카사마
사업명	휴식공간정비사업	농촌자원활용사업
위치 및 배치		
채재형 숙박시설		
사업비	240,429천엔 (국가보조: 120,214천엔)	약8억3천만엔 (국가 40%, 현 20%부담)
총면적	9,274㎡	약 4ha
구획수	20구획(면적: 270㎡)	50구획(면적: 약300㎡)
라우베	29㎡	37㎡
이용료	40만엔(광열수도비 별도)	40만엔
임대기간	1년(최장5년, 갱신 가능)	
부대시설	주차장, 농기구보관소, 음료장, 옥외화장실, 클럽하우스	숙습기시설, 쟁가공시설, 클럽하우스, 소바집, 농산물직매소
기타시설	1일 시민농원: 37구획 (1구획당 약25㎡)	1일농원: 50구획 (1구획:30㎡)
이벤트	시골친척제도(田舎親戚)	입촌식, 주변 워킹, 클라인가르텐의 날
응모방법	추천 (경쟁률 10배)	면접
운영주체	재단법인 야치요초 후루사토 공사	JA이바라기중앙
이용규칙	-부부만의 사용은 안됨. -2개 팀(조합)이 동시에 응모하여야 함	-
개원시기	2004년	2001년

을 계약 단위로 갱신 가능하지만 최장 5년까지만 임차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클럽하우스, 퇴비창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 창고, 공동화장실, 취수장, 주차장 등이 있다. 시설 사업비는 2억 5천만엔(2003년도)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절반은 정부 보조금이다.

3) 운영 및 교류, 이벤트

현지 농가의 관리인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공유 부분의 정비나 이용자 상담 대응이다. 이용자

1가구에 대해 현지 농가 1가구를 대응시키는 ‘시골친척 제도(田舎の親せき制度)’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농업지도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교류 이벤트는 연2회(5월 교류회 및 가을 수확제) 정도 개최하고 있다고 하며, 주최는 모두 운영주체인 고향공사(財)八千代町ふるさと公社)가 담당하고 있다. 수확기에는 이용자와 현지 농가가 음식물 등을 취급하는 가게를 열어 지역주민이 손님으로 초청되어 클라인가르텐을 방문하는 교류 이벤트의 일종이다. 그 밖에도 이 지역 특산품인 멜론의 수확 체험이나 벼농사 체험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4) 이용 상황

2008년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구획당 이용자의 연간 평균 이용일수는 109일이었고, 전체 이용자수는 228명이었다. 이용자의 지역 출신상황을 보면, 도쿄도(8명), 사이타마현(5명), 치바현(3명), 카나가와현(2명)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60대(11명), 50대(6명), 70대(2명), 40대(1명)의 순이었다. 이곳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조사한 井上等(2007)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곳 이용자의 목적은 주로 농작업의 체험인데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실제로 시골친척제도에 의해 시골 친척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도시민에게 있어 클라인가르텐 이용 시 농촌주민과의 교류는 애초부터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거나 주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도농교류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카사마 클라인가르텐(笠間クラインガルテン)

1) 위치

카사마시(笠間市)는 이바라기현 중서부에 위치하며 도쿄로부터 약 100km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연간 기후는 온화한 편으로, 예로부터 죠카마치(城下町), 문젠초(門前町)로 번창해 왔다. 또 카사마 굽기(笠間焼き)로 알려진 도예의 메카이기도 하다. 이곳은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진 클라인가르텐의 대표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으로, 관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었다. 원래 39,669㎡(12,000평) 규모의 농지로, 40%가 담배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유흥농지였다. 그러나 담배밭 소유자의 고령화 등에 따라 카사마시가 약 12.5%인 4,959㎡(1,500평)를 매수하고 나머지를 임차하여 3년간의 정비기간을 거쳐 완성하였다.

Table 3 카사마 클라인가르텐 사업비 현황

연도	사업명	정비시설	사업비	보조비율
1999 ~ 2000	농촌자원활용사업 구조개선사업	숙박시설형 시민농원50구획 1일시민농원50구획 농산물직매소 소바집	6억엔	60%
2000 ~ 2002	중산간지역 종합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클럽하우스 육외교류광장 농촌공원	2억엔	85%
2000 ~ 2001	북서활성농업추진 사업	숯굽기시설 잼가공시설	3천 만엔	50%

(자료: 笠間市役所)

Table 4 카사마 클라인가르텐 이용자 응모현황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빈구획수	50	13	6	8	11	18	9	16
응모자수	78	38	23	21	16	50	50	37
응모배율	1.6	2.9	3.8	2.6	1.5	2.8	5.6	2.3

(자료: 笠間市役所)

2) 시설

체재형 숙박시설은 전체 50구획으로 1구획의 크기는 300㎡이며, 라우베는 평균 37㎡크기에 약 100㎡의 개인 텃밭을 가지고 있다. 연간 이용료는 40만엔, 관리비는 개인 부담이다. 계약조건은 전술한 야치요와 같으며, 부대 시설로서 클럽하우스, 농기구 수납창고, 퇴비창고, 화장실, 주차장 등이 있다. 당일치기형 시민농원 이외에 농산물 직매소, 메밀국수집, 숯구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숯공방, 잼 가공시설인 낙농공방(楽農工房) 등 일본의 여타 클라인가르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이 특징이다. 체재형 숙박시설 건설에 5억엔, 기타시설에 1억엔, 합계 6억엔(2000년)이 소요되었다(Table 3). 라우베 1구획 건설 시 소요금액은 인프라 정비를 포함해 시설당 1,000만엔이 소요되었으며(라우베 자체는 580만엔), 숙박시설의 보조비율은 60%로 이 중에서 국가가 40%, 현(県)이 20%를 보조하였다.

3) 운영 및 교류, 이벤트

이용자 입촌식에는 관찰 시장도 참석하고 있다고 하며, 연4회 ‘클라인가르텐의 날’이 있어 이용자끼리 오전에는 청소하고 점심을 함께 지어 먹으며 친목을 도모한

다고 한다. 또한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주변지역을 산책 하면서 이웃 농가에 들러 교류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여름철에는 이용자 모임인 ‘유즈미카이(夕涼み会; 여름철 낮이 덥기 때문에 저녁 무렵의 선선한 때에 모임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으며, 연1회 지역교류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을 이곳에 초청한다고 한다.

그밖에도 이용자의 자주적 활동은 다양한데, 예를 들면, 남성끼리의 요리교실을 개최하거나 여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도예교실도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취미생활인데 이용자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한다. 또한 점심식사를 즐기는 모임이 있는데, 카사마 시내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는 것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지자체 공무원은 그 의의를 강조하였다. 즉 농원 체재자는 각종 세금(주민세, 고장자산세 등)을 이 지역에 내지 않기 때문에, 대신 카사마 지역의 상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자발적 모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카사마 강연회’를 개최하여 클라인가르텐 이용자에 의한 공개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자 개인의 생활경험, 노하우 등 유휴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만들기에 일조하는 취지로 출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4) 이용 상황

Table 4는 이용자 응모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8년간 응모자 배율을 보면 평균 2.89이다. 2006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희망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응모 가능하다. 연령별 이용현황을 보면, 30~40대는 어린이에게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60~70대는 정년 후 소일거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최근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곳 체재형 시민농원을 계기로 다지역거주(멀티해비) 또는 전원지역으로의 이주를 실행에 옮기는 가구가 많다고 한다.

2. 일본 근기권

가. 클라인가르텐 이유노사또(伊由の郷)

1) 위치

아사고시(朝來市)는 2005년 4월 주변 4개의 초(町)가 합병해서 탄생한 인구 35,000의 중산간 도시이다. 이곳은 효고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주요 지방도시에서 자동차로 1~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 북쪽으로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위치한 시로자키(城崎) 등의 관광지

와 반대편 남쪽의 태평양해에 면한 한신(阪神) 도시를 연결하는 중산간 통과지역에 위치하여, 고베(神戸)까지는 약100킬로미터, 히메지(姫路)까지는 약50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다.

시민농원은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이 만들어낸 선상지 일대에 위치하며, 옛날에는 계단식논과 누에 밭이 있었고, 이곳에 시민농원이 들어서기 직전에는 양계장이 있었다. 1990년경부터 양계장의 악취문제가 부락의 큰 골칫거리로 대두되어 축사를 철거시키고 그 자리에 황무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원이 탄생한 것이다. 당시 농가의 고령화와 농사일 기피, 짐승에 의한 피해 등으로 이곳은 유희농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주민들로부터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도농교류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자치행정의 주요 방침으로 표방하고 있던 관할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곳을 클라인가르텐 형식으로 개발할 것을 결정하고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즉 유희농지 대책에서 도농교류 시책의 일환으로 클라인가르텐을 추진한 전형적인 사례인 셈이다.

2) 시설

주변 경사지를 활용한 순용형 단지배치가 인상적이며 총구획수는 25호이다. 각 구획에는 라우베(32㎡~54㎡의 4개 유형), 텃밭, 전용주차장, 정원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욕실, 화장실, 부엌, 테라스가 딸려있다(Figure 2). 공용시설로는 클럽하우스, 다목적 소운동장, 주차장, 농기구보관소 등이 있다. 시민농원의 건설에 6억엔이 소요되었는데, 비용부담율은 국가가 50%, 현이 10%, 아사고쵸가 나머지 40%를 부담하였다. 특히 이곳은 전신주의 지중매설에 많은 시설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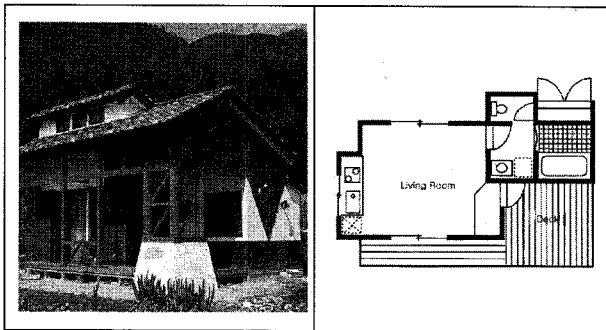


Figure 2. 라우베 A타입의 전경(좌) 및 평면도(우)
(자료: 朝來市 홈페이지)

3) 운영 및 교류, 이벤트

쵸(町)가 마을 측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현재 마을

주민인 전담 관리인 1명이 상주하면서 일을 보고 있다. 주요 업무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교류나 이벤트 행사 관리 등이다. 이곳 관리인은 구획 이외의 모든 곳을 관리하는데, 여름철에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는 '잡초제거'라고 답하였다. 운영관리자에 따르면,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로 매년 600만엔 정도의 흑자로 충당해 가고 있으나, 대규모 수선을 대비하여 매년 최소 600만엔 정도를 재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클라인가르텐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설 이용자끼리의 교류는 과거에 비해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과거에는 입주자 중에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아(도예전문가, 분재, 영어회화전문가 등) 각종 강습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입주자가 바뀌면서 강습회 등 교류회가 줄어들어, 예컨대 과거 연3~4회 정도의 교류이벤트가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줄어들어 가을운동회 정도의 연1회 모임만 있다고 한다. 관할 지자체의 재정상황의 악화가 결국 입주자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4) 이용 상황

이용자는 주로 오오사카·고베(阪神)지역 도시민으로 이곳까지 자동차로 약1~2시간 소요된다. 이곳 이용자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山本 등, 2001), 다음과 같은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용자는 자신의 도시로부터 다양한 생활과 취미를 이곳으로 가져오며, 농작업의 생활에 쉽게 정착하고 라우베를 중심으로 이용자끼리 다양하게 교류한다. 나아가 농원 부지 내에만 머물지 않고 인근 부락 및 근린지역을 외유하며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과 교류한다. 더 나아가 편의점이 있는 관할 소재지의 슈퍼까지 이동하여 쇼핑하거나 또는 다양한 지역 명소나 시설을 이용하고, 심지어 멀리 원거리까지 광역적 쇼핑을 하거나 관광한다. 즉, 지역에서 동심원적으로 전개되는 입주자의 교류활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류 발생의 요인'에서 입지조건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였다. 즉 입지 특성으로 40여 가구가 모인 '야마우찌(山内)'라는 이 부락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부락민과 이용자 개인 사이에 생활영역이 상호 관입되어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다고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도시민인 이용자 측에서는 "식품 구입, 산책, 어린이 놀이"와 같이 농원에서 부락으로 생활의 영역을 넓히고(농원 → 부락으로의 생활의 관입), 반대로 부락민 측에서도 특히 어린이 등과 동반하여 지역주민들이 빈번히 이곳으로 외유

하러 오므로(부락 → 농원으로의 생활의 관입), 이러한 점점 과정에서 교류활동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분석은 향후 우리나라 체재형 가족농원 개발에 있어서 도농교류를 위해 그 입지조건이 적정규모의 자연 부락과 인접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 타카쵸(多可町) 소재 체재형 시민농원의 현황

이름	전체 면적(m ²)	구획 수	임대료 (엔/년)	개설 연도
후로이덴·야치요 (フロイデン八千代)	31,000	60	276,000	1993년
클라인가르텐·이사리가미 (クラインガルテン岩座神)	9,000	15	540,000	2002년
브라이벤·오오야 (ブライベンオオヤ)	7,000	20	304,000	2002년
부루멘·야마토 (ブルーメンやまと)	16,800	30	396,000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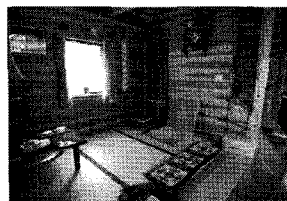
※ 이름에서 굵은 글씨체는 약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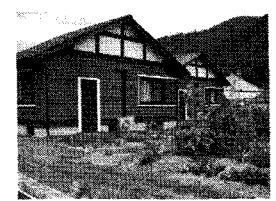
a. 후로이덴·야치요



b. 이사리가미



c. 브라이벤·오오야



d. 부루멘·야마토

Figure 3 클라인가르텐의 라우베 내·외관.

나. 다카쵸(多可町) 소재 클라인가르텐

1) 위치

효고현 다카쵸에는 Table 5와 같이 현재 4개의 체재형 시민농원이 정비되어 있으며, 모두 지역 산업진흥과가 담당하고 있다. 대도시 근교라는 입지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름답고 문화의 향기 높은 농산촌공간의 형성"을 슬로건으로 하여 클라인가르텐을 정비하였는데, 본고의 현지조사는 야마토를 제외한 세 곳에서 실시되었다. 이곳 다카쵸는 가장 먼저 개발된 야치요를 계기로

외부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일본 녹색관광의 모범 지역으로 소개되고 있다. 야치요는 맑은 하천 옆의 넓은 부지에, 이사리가미는 유희농지가 된 계단논의 비탈진 산기슭에, 오오야는 경사지의 카사가타야마(笠形山)의 산마루에, 야마토는 평지에 각각 개설되었다.

2) 시설

야치요는 1993년 이 지역 최초로 설립된 체재형 시민 농원으로 규모나 이용자 선호도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곳이다. 60동이나 되는 대량의 라우베와 교류센터, 관리동, 야외마당, 공유농원, 공동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사리가미의 경우는 읍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라우베는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지만 모두 욕조, 화장실, 에어컨, 부엌, 나무데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약 4명이 숙박할 수 있다. 공동시설로는 클럽하우스와 농기구창고를 갖추고 있다. 오오야는 다락논을 활용한 곳으로 라우베는 33m² 크기의 일반형 16개와 장애 대비 3개, 그리고 30m² 크기를 갖는 1개동의 무장애 라우베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무장애시설이란 라우베에 장애자 대응의 난간이나 경사로를 갖춘 것을 말한다. 또한 공동시설로 공동주차장과 교류활동 촉진용 공동광장, 친환경 태양광 및 풍력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이곳보다 약 10년 전에 건설된 야치요보다 시설이 한층 고급화된 만큼 이용요금은 그만큼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치요나 오오야는 이용 희망자가 대단히 많아 대기자 리스트가 생길 정도로 도시민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3) 교류 상황

이 지역에 개최되는 이벤트 정보는 신문 등을 통해 대도시 지역에 적극 홍보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에 따라 이용자에 의한 자치회 조직이 있는데, 예컨대 '후로이덴야치요 동호회'나 '브라이벤오오야 동호회'는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계절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이벤트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야치요의 경우, 야치요 관리조합은 농원의 자치조직에 의해 운용되며, 상근 관리인 1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용자가 가입하는 동호회(友の会)에 있어서도 5집 가운데 1명이 임원으로 선출되어, 각종 이벤트나 축제 등의 실시에 관여하고 있다. 이같이 체재형 시설과 모범적인 운영관리로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활발한 모범지역이다. 지역주민과의 체계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클라인가르텐 이용자가 농업 재배기술을 익히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3. 일본 현황조사로부터 시사점

가. 하드웨어 측면

첫째, 시설 및 규모는 지역 실정과 장기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건설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인 클라인가르텐의 설치 개소는 전국적으로 약 60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나가노현(長野県)과 효고현(兵庫県), 아마구치현(山口県), 기후현(岐阜県) 등에 많이 있는 편이다.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 활성화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으며, 어떤 곳은 라우베를 두지 못하도록 지역방침이 정해진 곳도 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보조금에 의한 시설 조성이라는 이유로, 지역특성과 도시민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건설해서는 향후 운영 등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지속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둘째, 클라인가르텐의 라우베는 적정 개소를 충족하여야 지역주민과 원활한 교류를 이룰 수 있다. 현재 일본 체재형 시민농원의 평균 부지면적은 19,463㎡이고 평균 구획수는 48개이다(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 이 통계자료에는 당일치기형 주말농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중에서 체재형 숙박시설을 갖춘 것만을 추계하여 집계하면 농원당 평균 25개소의 라우베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적게는 10개소 미만인 설치된 곳이 60여 곳 중에서 6곳으로 전체의 10%정도를 차지하며, 많게는 전술한 카사마 50구획, 후로이텐야치요 60구획도 있다. 이용시설은 입지와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가 정해지겠지만, 일본시민농원연합 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운영결과 약 20~30개소의 라우베 설치가 좋은 것 같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규모면에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염두에 둔다면, 만약 지나치게 많은 것은 단지(團地)화되어 이용자 간에 이질감을 주며, 반대로 너무 적은 것은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래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소규모 체재형 숙박시설을 갖춘 가족농원은 매우 소규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체계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입주자끼리의 체계적인 교류도 형성되기 힘들다. 말하자면 도시민 계약 세대에게 있어 클라인가르텐은 일종의 임차형 주말별장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향후 지속성을 담보한 도농상생과 교류의 맥락에서 클라인가르텐 본연의 모습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 클라인가르텐 숙박동의 규모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영관리에도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일본 클라인가르텐 사업주체는 시정촌인데, 국가나 광역지자체로부터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여 시설이 조성되지만, 적잖은 운영자금이 소요되어 행정 주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래 민간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 통나무 형식으로 건설되는 라우베(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에서는 ‘로그하우스’로 지칭되기도 함)는 목구조이기 때문에 내구 연수가 상대적으로 짧다. 20여년이 지났을 때를 고려해서 라우베를 개축할 만한 금액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든가(예컨대 관리비에서 ‘수선충당금’ 형식으로 징수하는 곳은 일본에서도 극히 일부의 클라인가르텐에서 실시 중), 또는 지자체에서 이만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전술한 이유노사또의 사례처럼 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운영 보조금이 줄어들면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도 크게 침체된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클라인가르텐의 입지특성에 따라 도입하는 부대 시설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전술한 카사마(笠間) 사례와 같이 농산물직판소, 음식점, 각종 체험시설 등과 함께 일체형으로 건설하는 이른바 ‘시설복합형’ 클라인가르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현행 일본 법률상 복합시설의 병설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지자체로서도 공적 자금으로 이러한 시설을 쉽게 ‘농지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클라인가르텐과 병설하는 음식점이나 농산물직판소 등의 시설은 많은 경우 입지가 좋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취약성이 있다. 당초 복합시설 개발을 통해 각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도입하였건만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이유는 수요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데, 즉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클라인가르텐과 불특정다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은 사실 공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클라인가르텐 이용 희망자는 도회지를 떠나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호젓한 곳을 선호할 것이고, 음식점이나 직판장 등 불특정 다수시설의 이용자는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설복합형 클라인가르텐을 건설할 경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나. 소프트웨어 측면

첫째,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런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이 적자다.”라고 하여, 지역주민의 이해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江川, 2006). 클라인가르텐 이용자는 시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고한 뒤에 응모해서 입주하지만, 지역주민은 클라인가르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여 교류가 원활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행정 측은 클라인가르텐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지도자에 의한 교육 전파나 또는 홍보를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재형 시민농원 클라인가르텐은 교류에서 이주 및 정착으로의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술한 카사마의 경우, 이미 개설한 지 5년이 경과하여 1기생이 모두 졸업하였는데, 이들 50가구를 추적한 결과, 약 10가구가 카사마시로 정주하게 되었다(都市農山漁村交流活性化機構 2006). 이 사례는 “관광 → 교류 → 정주”로의 이행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정년퇴직과 더불어 도시와 전원생활을 동시에 지향하는 멀티해비의 시대가 점차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의 접지대로서 이 같은 체재형 가족농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셋째, 자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전술한 일본 현지조사를 통해 살펴본 클라인가르텐들은 모범사례여서 그런지 운영관리가 대체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 시민농원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기존연구에서도(加藤, 2007), 시민농원의 이용자 조직에 의해 주체적 활동이 활발한 곳은 단지 전체가 조화롭게 정리되고 또한 관리된다고 하였다. 또한 시설 이용자의 주인의식에 의해 농원 전체의 경관이 크게 영향 받는다고 하였다. 이용자 자치관리 규정의 마련과 참여유도를 통해 농원 전체가 경관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국내 클라인가르텐 이용자의 만족도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자치규약 마련은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전용 텃밭을 마련한다거나, 라우베 실내난간이나 경사로 설치, 무장애 시설의 완비 등 장애인들도 건강한 사람들과 더불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은퇴 후 고령자들이 이들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미 소개하였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본 클라인가르텐에서는 대부분 최소 1구획 이상이 장애인 전용시설로 확보되어 있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향후 도시민의 전원 체험형 관광 및 멀티해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일본 클라인가르텐과 같

은 체재형 가족농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클 것에 주목하였다.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우리나라에서 작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한국 체재형 가족농원의 좋은 모델로 벤치마킹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 사례분석은 대부분 그 외형적 시설과 제도운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본고는 이와는 달리, 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소프트 측면에서 이론고찰과 현장밀착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일본 클라인가르텐 특성과 제도의 성립과정을 정리하고,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시설특성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운영상황,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연구에서 소개된 여러 장점 외에 일본 클라인가르텐 역시 나름의 문제점과 과제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많은 자료에서는 시설의 외형적 장점과 제도적 특성만 부각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 문화, 국민성, 좁게는 정책 상황에 따라 제도 및 도입 시설·프로그램 등이 상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본의 클라인가르텐의 경우 일본 독자의 모델로 정착하기까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발전해 온 것을 상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험을 참고하여 입체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법이나 제도, 행정 지원, 관리운영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체재형 가족농원의 모형개발과 관련하여 간략히 제언을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인가르텐의 역할에 대해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요적 측면은 사람(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건강, 생산, 여가, 교육 등)에 주목하는 것이며, 공급적 측면은 장소(도시근교 및 외곽지역)를 대상으로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주목하는 것이다. 원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초기 일본의 시민농원의 출발점은 도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서 사회복지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말하자면 수요적 측면이 강조된 셈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의 시민농원이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 등에 편성하여 체재형 시민농원인 클라인가르텐 등으로 발전하고, 또한 이들 시설이 우여곡절 끝에 1980년대말 법적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일본 독자적 형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클라인가르텐은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수익성을 중시하거나 또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추진되면서 그 본질적 대상인 수요적 측면이 적잖이 간과되었다. 다시 말해,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클라인가르텐은 수요특성이 강조되는 ‘필요성’의 논리보다는 공급

특성이 강조되는 '경제성'의 논리로 다소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클라인가르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이웃 일본의 클라인가르텐에 대한 배경과 경위, 문제점 등에 대한 심층적 고찰은 소홀히 한 채 벤치마킹한 결과, 자연스레 도시민의 수요적 측면은 소홀한 채 공급 및 시설활성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민 중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수요분석이 미흡하고(제한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샘플링 부족), 나아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형은 과연 무엇인지, 국토공간 정책이나 농업정책, 나아가 멀티해비 시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과는 어떻게 연계시키고 제도적으로 위상매김해야 하는지 밑그림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만약 일본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우리나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의 공공 보조금에 의해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면, 도시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시설이용을 고려한 사회적 통합 모델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민 중 클라인가르텐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중고소득층만이 아닐 터이고, 클라인가르텐의 원조인 독일에서도 애초 도시의 집에 정원이 없는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래 체제형 가족농원의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경제적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 도시민인데다, 시설 또한 이들을 위한 사실상 전원주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클라인가르텐처럼 사회복지의 이념을 강조하여 공적자금을 통해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면, 일반 도시민의 건강과 더불어 이들 사회 취약계층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클라인가르텐을 유형화하여 시설의 입지나 배치, 규모, 도입 시설 및 운영관리 등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공 보조금의 성격은 지역활성화나 농업·농촌 보조금의 성격 외에 사회복지 또는 복지관광과 같은 성격을 동시에 부여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일본의 국토정책, 농업정책, 관광정책, 도시계획 등 보다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맥락에서 일본 클라인가르텐에 대해 심층 고찰하여, 이를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위상을 갖는 제도나 정책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형 모델 개발에 있어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소개한 사례지역의 현지조사 내용은 어디까지나 인터뷰 시점 현재의 내용이므로 시간 경과에 따라 이용자 특성 등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

는 가변적 성격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주1) 라우베(Laube)란 독일어로 농원에 붙어 있는 오두막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cottage, 일본어로는 小屋 등으로 일컬어지는 재용 시설이다. 독일에서 라우베는 원칙적으로 숙박을 할 수 없지만 일본의 라우베는 대부분 숙박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통나무집에 전기, 가스, 하수도, 냉난방의 설비를 갖추고 테크공사를 한 ILDK 정도의 것이다.
- 주2) 二地域居住란 2005년 국토교통성 연구회에서 제창한 것으로 베이비붐세대(団塊世代)의 정년퇴직으로 도시주민에게 확산될 생활양식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말이나 일정기간을 농촌 등에서 지내는 것을 말한다(<http://ja.wikipedia.org>).
- 주3) 高橋(1991)는 일본 최초의 시민농원으로 1926년 오오사카시농회(大阪市農會)에 의해 개설한 유노사토농원(湯ノ里農園)과 야마구찌농원(山口農園)으로, 공원시설로서는 오오사카시 시로기타공원(大阪市城北農園)의 분구농원(分區農園)이 제1호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1구획 약 52㎡로 90구획을 갖추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되었다고 하였다.
- 주4) 광역자치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은 도시계획구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시가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구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을 법률상으로는 구역 구분(zoning)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선 통상 선비키(線引き)라고 부르고 있다.
- 주5) 이 제도는 나가노현 시가촌(長野県 四賀村)의 보오즈야마·클라인가르텐(坊主山クラインガルテン)에서 처음 도입한 것이다. 각 구획 이용자에 대하여 1명의 지역주민이 친척처럼 교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이용자의 농작업이나 지역에서의 생활 보조 등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이용자와 교류를 통해 이문화(異文化)에 접촉하고, 지역 밖의 정보나 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부분이 없어져 주민의식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교류 거주자의 지역참가에 의한 사회적 효과는 이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 효과가 크다(西健一, 2007).
- 주6) 城下町란 일본에서 영주의 거성(居城; 영주의 생활 장소로 주민들의 거점이기도 하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한편 門前町란 유력 사원이나 신사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말한다. 대규모 많은 참배객을 모으는 신사나 사원 앞에 사찰 관계자 및 참배객을 상대로 상공업자가 모임으로서 형성된다(<http://ja.wikipedia.org>).

이 논문은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8-331-C00333).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김재원, 2007, 外國의 滯在形週末農場事例를 통한 韓國式 滯在形週末農場 形態에 대한 提案, 서울시

- 립대학교 산업대학원.
2. 농촌진흥청, 2005, 외국의 가족농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3. 박덕병 등, 2006, 외국 가족농원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일본, 독일,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2(2), 75-85.
 4. 박덕병 등a, 2009, 체제형 가족농원 이용자의 요구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 33-49.
 5. 박덕병 등b, 2009,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농촌 체제형 가족농원 관광상품개발, 관광학연구, 33(1), 303-325.
 6. 박선희, 2010, 일본 시민농원의 공동시설 및 라우베 공간구성 특성,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2(2), 49-59.
 7. 손혜미, 최정민, 2009, 복수 거주 개념에서 살펴본 체제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의 실태와 과제,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7-221.
 8. 오마이뉴스, “도시농업, 지자체 마음먹기에 달렸다: 도시의 새로운 대안, 도시농업”, 2008년 12월 15일.
 9. 이민수 등a, 2007, 체제형 가족농원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농촌관광연구, 14(2), 65-83.
 10. 이민수 등b, 2007,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체제형 가족농원 육성방안 - 시장세분화 접근, 농촌계획, 13(2), 93-105.
 11. 加藤壯一郎, 2007, 日本の緑地政策における「市民農園」の可能性, 公共研究, 4(3), 187-200.
 12. 菊池明美, 2001, 高齢化社会に果たす市民農園の役割 : ドイツ「クラインガルテン」からの示唆, 近畿大学豊岡短期大学紀要, 29, 135-142.
 13. 江川青加, 2006, 市民農園からみえる日本社会, 東洋大学.
 14. 古屋岳彦, 牧山正男, 2004, 滞在型市民農園利用者の意識と行動および地域活性化への寄与の可能性 : 笠間クラインガルテンを事例に, 農村計画学会誌, 23, 205-210.
 15. 高雄綾子, 2007, ドイツにおける「市民的環境教育」に関する一考察 : 伝統的アソシエーション活動であるクラインガルテン制度の実践から,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46, 301-309.
 16. 大江靖雄, 2009, 体験型市民農園にみる都市農地利用と市民参加-新しい農村地域資源管理に向けて, 食と緑の科学, 63, 9-17.
 17. 都市農山漁村交流活性化機構, 2006, 滞在型グリーン・ツーリズム等振興調査報告書.
 18. 東廉, 1985, 西ドイツのクラインガルテン制度 : わが国への示唆, 農林統計調査, 35(4), 2-8.
 19. 東廉, 1991, 農地過剰、市民農園及び都市化地域の計画制度:ドイツ及び日本, 農村計画学会誌, 9(4), 39-46.
 20. 宮下聖史, 2006, 日本型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特質と地域的展開 : 長野県四賀村を事例として, 立命館産業社会論集, 42(3), 109-131.
 21. 山口泰史, 2009, 地方都市におけるクラインガルテンへの需要:山形市のマンション居住世帯を対象とした調査から, 東北公益文科大学総合研究論集, 紀要論文, 16, 113-130.
 22. 三島伸雄, 2003, 健康的住まいとしてのウィーンのクラインガルテンに関わる法改正と空間実態, 都市計画論文集, 38, 31-36.
 23. 山崎英二, 2000, 公共サービスとしての市民農園, 立教観光学研究紀要, 2, 87-92.
 24. 山崎寿一, 2004, クラインガルテンによる農村集落の再活性化 : 兵庫県朝来町「クラインガルテン伊由の郷」の場合, 農村計画学会誌, 22, 312-315.
 25. 山本泰裕 et al., 2001, 滞在型市民農園による都市農村交流に関する研究(農村計画), 日本建築学会近畿支部研究報告集 計画系, 41, 357-360.
 26. 山本泰裕 et al., 2001, 中山間地域・朝来町の都市農村交流施策と滞在型市民農園 : 兵庫県朝来町滞在型市民農園「クラインガルテン伊由の郷」の研究(その1), 学術講演梗概集, E-2, 595-596.
 27. 松宮朝, 2006, 都市における住民主導型市民農園の地域的展開 : 愛知県西尾市楽農園の事例から, 愛知県立大学文学部論集, 社会福祉学科編, 54, 151-170.
 28. 柴田雅敏, 1994, 市民農園, 農村計画学会誌, 12(4), 52-53.
 29. 永井仲昌, 星 政臣, 2007, 山梨県甲斐市における梅の里クラインガルテンの成立基盤, 地域研究年報, 29, 99-110.
 30. 長谷山俊郎, 1996, 滞在型クラインガルテン導入の意義 : 長野県四賀村の取り組みから, 農業および園芸, 71, 1049-1054.
 31. 井上真美, 牧山正男, 2007, 滞在型市民農園利用者の都市農村交流に対する意識の低さ~クラインガルテン八千代(茨城県)を事例として.
 32. 高雄綾子, 2006, ドイツにおける「市民的環境教育」に関する一考察-伝統的アソシエーション活動であるクラインガルテン制度の実践から, 東京

- 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46, 301-309.
33. 鄭岩宇, 1995, 計画案選択の最適化手法 : 中山間地域における「クライנגルテン」整備計画を事例として, 農村計画学会誌, 14(2), 21-32.
34. 祖田修, 1981, 西ドイツのクライングルテン制度 : 都市地域計画の一条件, 龍谷大学経済経営論集, 21(3), 70-82.
35. 佐古井貞行, 2008, 農園都市形成の意味と構造, 埼玉学園大学紀要(人間学部篇), 7.
36. 千葉県市民農園協会, 2004, 市民農園のすすめ, 創森社.
37. 穂鷹知美, 2002, ライプツィヒにおけるクライングルテン施設の歴史的発達に関する研究, 都市計画, 237, 63-69.
38. 横山光雄, 1989, クライングルテンの現況と課題, 農村計画学会誌, 8(2), 2-6.

접 수 일: (2010년 6월 10일)

수 정 일: (1차: 2010년 7월 29일, 2차: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0일)

■ 3인 익명 심사필